



## 인생을 바꾼 청림



갑갑한 독서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은 나의 콧잔등까지 지나치지 않고 들르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독 뜨겁게만 느껴진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아주 잠깐 바람이라도 쐬까? 라는 유혹은 쉽사리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해 보자. 남들보다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만 더 공부한다면 올해는 꼭 붙을 거야. 들썩들썩 의자에서 한시라도 떨어지고파하는 몸을 간신히 붙들어 매고 다시 간이 스탠드에 불을 켜다.

가정형편을 이유로 잠시 포기해야만 했던 나의 꿈은 오늘도 무더운 계절을 잊은 채로 힘겨운 시간을 지운 채로 책상 앞에 곳곳이 나를 서게 한다.

꿈이 없던 아이였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으며 대화 할 사람도 없는 외톨이였다. 매사 부정적이었고 시큰둥하였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가도 머리를 쓰다듬어 줄 엄마는 계시지 않았다.

어쩌다가 동네 친구들과 싸워도 꾸중해 줄 아버지도 없으셨으니 무엇이든 잘 해보고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내겐 부질없는 것이었다. 바깥일로 항상 바쁘셨던 부모님 밑에서 나는 천덕꾸러기로 빙빙 돌며 자라났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급속도로 뺄어져만 갔다. 알음알음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이곳 저 곳을 배회하느라 학교에 안 가기도 일쑤였다.

1학년을 어렵게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만난 담임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내게 무척 호의적이셨다. 이미 문제아로 낙인찍힌 나와 언제나 대화하길 원하셨고, 꾸지람 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셨다.

그 따스한 눈길이 내게는 어색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관심이 부담스러워 학교를 더욱 가지 않게 되었다. 며칠 동안이나 학교를 가지 않은 나를 대신 해 엄마가 학교에 다녀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억지로 학교로 향했다.

“훈아! 학교는 학생이 와야지! 부모님이 오시면 되겠니? 이제 학교 빠지지 말고 무슨 일 있거든 선생님께 꼭 말하려무나. 그리고 이걸 어머니께 꼭 전해 드렸으면 좋겠다.”

단단히 봉해진 편지 봉투는 무척이나 두텁고 뽀뽀하였다.

가정통신문일까? 내 흥을 적어 놓은 것일까?

편지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호기심이 물밀 듯 밀려왔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구석진 골목에 숨어 여러 겹 꼼꼼히 풀로 봉해진 봉투를 뜯어내고야 말았다.

‘우수수.’

흡사 나뭇잎처럼 내 눈앞에 떨어지던 만 원권 지폐 여러 장! 주섬주섬 교복 바지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고는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훈이 어머니!

어머님의 마음과 정성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의 도리를 알고 긍지를 갖는 것이 또 그것을 지켜 내는 것이 제게는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훈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제게는 소중한 사랑스런 제자입니다. 관심과 대화로 제가 또 부모님이 훈이를 대한다면 곧 학생의 신분과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로 변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니가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훈이를 지도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이를 통해서만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읽었던 선생님의 편지를.

길지 않은 내용을 읽으며 흘렸던 눈물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학부모도 학교도 선생님도 언론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촛지를 금지하고 있는 지금이야 어림도 없는 소리겠지만 엄마는 부끄럽게도 당신이 보낸 촛지가 나를 통해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도 간혹 학교를 찾으실 때 마다 촛지를 준비하시곤 하셨었다.

직장일로 바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에게 관심을 둘 수 없는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엄마가 촛지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쩔 엄마가 촛지를 드려 선생님이 잘 해주시는 것은 아닐까?

학교를 빼 먹고 놀던 날에도 엄마가 촛지를 드리면 이런 잘못쯤은 봐주시겠지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몰래 뜯어 버린 편지봉투를 버리고, 교복 주머니에 넣어 둔 돈과 선생님의 편지를 그대로 잘 접어 문방구에서 산 새 봉투 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밤늦게야 집에 오신 어머니에게 전해 드린 뒤, 나는 내 일기장 속에 난생 처음 꿈이라는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나의 꿈은 언제나 정정당당하고 국민을 위해 부끄럼 없이 일하는 경찰이라고…….

잠시 뒤. 갑자기 귓불까지 벌겋게 달아 오른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신 어머니는 “훈아! 너의 담임선생님은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이란다. 어머니가 참 부끄럽구나. 너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내 손을 붙잡고 다시 학교를 찾으셨다.

선생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들을 수 없었지만 짐작 할 수는 있었다.

당연한 일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어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도 위대한 일일 수 있음을 나는 그때 어렵듯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수학 공식이며 영어 문법보다 교육자의 도리와 긍지를 올곧이 지켜 가셨던 선생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큰 교훈과 드넓은 교육이 되어 내 가슴에 내 머릿속에 전해졌다.

그렇게 나는 첫 꿈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안게 되었다.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청림과 정직은 나를 바로 서게 하였고, 나는 장래 희망 란에 경찰이란 단어를 또박또박 적어내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적지 않은 수회의 고배를 마신 후,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님의 편지를 떠올려 본다.

청림과 정직이 가장 강한 교편이라 믿으셨던 선생님은 그 교편으로 문제아에게도

모범생에게도 부자인 아이에게도 가난한 아이에게도 고른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셨다.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모두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었다.

당신의 밑에서 우리는 교과목 보다 더 중요한 본을 배웠으며 진리를 깨우쳤고, 꿈을 가질 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청렴은 누군가가 가르치고 알려 준다 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공직자가 국민에게 몸에 베인 청렴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전해지는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같은 존재인 것이다.

청렴은 본이다.

당연하기에 지켜져야 하지만 누군가에게겐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청렴은 진리이다.

청렴한 세상만이 푸르게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욕심은 때론 진리마저 잊게 한다.

청렴은 꿈이다.

공직자나 교육자만이 아닌 누구나가 청렴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 꿀 수 있으리라!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능력 있는 선생님보다 청렴과 정직이란 교편을 잡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와 빛나는 꿈을 지도 해 주셨던 진정 아름다운 교육자였던 선생님을 부끄럼 없이 다시 뵈러 갈 그 날을 꿈꾼다.

‘청렴’이란 두 글자를 나의 가슴속에 빼곡히 수놓아 주셨던 선생님께 푸른 제복의 경찰관이 되어 찾아 갈 그 날을 기다리며 다시 책장을 열어본다. **청렴@세상**